

#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명남, 오은주\*, 이해랑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yeong Nam Park, Eun Ju Oh\*, Hae Rang Lee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J 지역과 B 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203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r=.56, p<.001$ ),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9.30, p<.001$ ). 자기 주도성( $\beta=.49, p<.001$ ), 학년( $\beta=.29, p<.001$ ), 동료관계( $\beta=.13, p=.013$ )가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8%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주도성 함양 및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및 향상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nes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clinical performance and the factors affecting this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3 nursing students located in areas J and B.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the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 $r=.56, p<.001$ ), and the regression model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clinical performance was significant ( $F=19.30, p<.001$ ). The variables, namely self-directedness ( $\beta=.49, p<.001$ ), grade ( $\beta=.29, p<.001$ ), and peer relationship ( $\beta=.13, p=.013$ )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nd their explanatory power was 38.8%. These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curriculum and an improvement program to cultivate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improve their clinical performance.

**Keywords** :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n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

\*Corresponding Author : Eun Ju Oh(Jinju Health College)

email: eun-ju218@hanmail.net

Received April 11, 2022

Accepted July 7, 2022

Revised May 18, 2022

Published July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교육의 성과지표로 졸업 후 간호사로서 실무를 해결하고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요인이며[1], 임상 실무에서 대상자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중재를 수행하는 것은 돌봄 대상자의 건강 문제 및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무엇보다 우선 적으로 함양되어야 할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임상 현장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과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2]. 능숙한 임상수행능력의 중요성으로 간호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핵심 술기 항목을 집중적 배치하여 평가하고 있고, 직접 간호 활동을 익히기 위해 임상 현장과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에서의 현장 실습은 관찰 위주로 직접적인 간호 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교내에서 현장 실습을 대체하고 있다. 가상 현실 상황과 인간 반응 시스템 모형을 접목한 교내 실습을 통해 임상실습을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임상 현장과의 차이로 인해 갓 졸업한 신규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임상수행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가중되고 있다.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결여는 임상 현장의 부적응을 초래하여 이직으로 연결되며, 간호업무에 만족할 때 의료기관에 재직하고자 하는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볼 때[3],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향상은 향후 미래의 간호업무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생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 자신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어야 한다[4]. 특히 임상 현장은 대상자의 예측 불가능한 건강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자기 주도성은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파악하고,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다[5]. 간호대학생은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 때 자기 주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핵심술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6,7]. 일반대학생을 대상으

로 조사된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은 진로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8].

한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 실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감정, 사고 과정, 육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어 걱정이나 근심을 느끼게 하는 긴장 상태를 말한다[9]. 임상 현장실습은 충분한 이론 지식에 근거한 간호 수행 활동이 수반 되어야 함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상당히 경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10]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낮아지는 결과를 볼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의 세 변수를 통합하여 관련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임상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J시와 B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양측검정),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13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수는 189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작하였고, 이중 응답이 부적절한 7명의 응답을 제외한 203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은 Jeong[5]이 개발한 대학생 자기 주도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으로 목표 지향성 7문항, 독창성 5문항, 책임감 5문항, 독립성 4문항, 개방성 6문항, 자율성 5문항, 자기 확신 5문항, 도전정신 4문항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 2.3.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Whang[11]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 총 5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상황 특성, 개인 특성, 외부적 조정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 특성으로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6문항, 실습환경 9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갈등 2문항이며, 개인 특성으로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과 기술적 요인 6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이며, 외부적 조정요인으로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2.3.3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12]등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 도구를 Choi[13]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과 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6 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각 문항은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 최미숙(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되었다. 간호학과와 학과장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해 설명 하였다. 익명성과 자발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으로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하였으며, 공차 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 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과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예정이며, 보관 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분쇄하여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마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73명(85.2%)로 많았고 남학생이 30명(14.8%)이었다. 학년은 3학년 139명(68.5%), 4학년 64명(31.5%)이었으며, 나이는 21-22세 83명(40.9%)로 가장 많았고, 23-24세 61명(30.0%), 25세 이상 59명(29.1%)이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함 141명(69.5%)로 가장 많았고, 거주 형태는 자가115명(56.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만족도는 보통 88명(43.3%)로 가장 많았고, 만족 68명(33.5%), 매우 만족 26명(12.8%)순 이었다. 학교 성적은 3.0이상 3.5미만이 6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실습 만족도는 만족이 98명(48.3%)이었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 83명(40.9%)로 가장 많았고, 동료관계는 좋은 편 94명(46.3%)으로 나타났다. 교내대체실습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3명(95.1%)이었다(Table 1).

#### 3.2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자기주도성은 총 205점 만점에  $152.71 \pm 19.25$ 점이었으며, 문항별 평균은 5점 만점에  $3.72 \pm 0.47$ 점이었다. 하위영역에서 문항별 평균은 책임감이  $4.17 \pm 0.65$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독창성이  $2.96 \pm 0.76$ 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총 290점 만점에 175.94점이었으며 문항별 평균은 5점 만점에  $3.02 \pm 0.58$ 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총225점 만점에 157.54점이었으며, 문항별 평균은 5점 만점에  $3.50 \pm 0.55$ 점이었다(Table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성은 성별( $t = -.363, p = .028$ ) 거주 형태( $F = 2.90, p = .036$ ) 대학 만족도( $F = 2.90, p = <.001$ ), 학교 성적( $F = 4.65, p = .004$ ), 실습 만족도( $F = 8.50, p = <.001$ ), 전공 만족도( $F = 13.40, p =$

$<.001$ ), 동료관계( $F = 28.04, p = <.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만족도를 사후 분석한 결과 '만족', '매우 만족'인 집단이 '매우 불만족'인 집단보다 자기 주도성이 높았으며, 학교 성적은 '4.0 이상'인 집단이 '3.0 미만'이나 '3.0 미만' '3.5 미만'인 집단보다 자기 주도성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의 사후분석에서는 '매우 불만족'인 집단보다 '보통'인 집단이, '보통'인 집단보다 '매우 만족'인 집단이 자기 주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3)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30	14.8
	Female	173	85.2
Grade	Third year	139	68.5
	Fourth year	64	31.5
Age	21-22	83	40.9
	23-24	61	30.0
	≥25	59	29.1
Health condition	Poor	5	2.5
	Average	57	28.1
	Good	141	69.5
Housing form	Self-owned house	115	56.7
	Lives off-campus	51	25.1
	Dormitory	34	16.7
	Other	3	1.5
Satisfaction with school	Very unsatisfied	4	2.0
	Unsatisfied	17	8.4
	Average	88	43.3
	Satisfied	68	33.5
	Very satisfied	26	12.8
Grade Point Average	(3.0	38	18.7
	3.0-3.5	62	30.5
	3.5-4.0	59	29.1
	4.0<	44	21.7
Satisfaction with practice	Very unsatisfied	4	2.0
	Unsatisfied	13	6.4
	Average	67	33.0
	Satisfied	98	48.3
	Very satisfied	21	10.3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unsatisfied	3	1.5
	Unsatisfied	13	6.4
	Average	73	36.0
	Satisfied	83	40.9
	Very satisfied	31	15.3
Peer relationship	Bad	1	0.5
	Average	39	19.2
	Good	94	46.3
	Very good	69	34.0
On-campus substitute practice	Yes	193	95.1
	No	10	4.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건강 상태( $F = 3.14, p = .045$ ), 대학 만족도( $F = 3.35, p = .011$ ), 실습

만족도( $F=3.60$ ,  $p=.007$ ), 전공 만족도( $F=2.71$ ,  $p=.03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 만족도를 사후 분석한 결과 '매우 불만족'인 집단이, '만족'인 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았고, 실습 만족도는 '만족', '매우 만족'인 집

단 보다, '매우 불만족'인 집단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다. 전공 만족도의 사후분석에서는 '만족', '매우 만족' 집단보다 '매우 불만족' 집단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203)

Variables	M±SD	Min-Max
<b>Self-directedness</b>	3.72±0.47	2.46-5.00
<b>Clinical practice stress</b>	3.02±0.58	1.43-4.64
<b>Clinical performance ability</b>	3.50±0.55	2.11-5.00

Table 3. Differences in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203)

Variables	Categories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ean (SD)	t or F (p) Scheffe's	Mean (SD)	t or F (p) Scheffe's	Mean (SD)	t or F (p) Scheffe's
Gender	Male	3.69 (.60)	-.36 (.028)	2.96 (.53)	-.71 (.248)	3.39 (.64)	-1.03 (.528)
	Female	3.72 (.44)		3.04 (.59)		3.52 (.53)	
Academic grade	Third year	3.68 (.44)	-1.54 (.262)	3.00 (.58)	-.95 (.507)	3.37 (.46)	-4.90 (.013)
	Fourth year	3.80 (.52)		3.08 (.56)		3.76 (.61)	
Age (year) *	21-22 <sup>a</sup>	3.71 (.44)	2.36 (.097)	2.94 (.54)	1.56 (.212)	3.40 (.48)	5.84 (.003)
	23-24 <sup>b</sup>	3.82 (.47)		3.07 (.55)		3.69 (.55)	
	≥25 <sup>c</sup>	3.63 (.51)		3.10 (.65)		3.44 (.60)	
Health status	Poor	3.46 (.35)	2.31 (.102)	3.45 (.48)	3.14 (.045)	3.30 (.41)	.61 (.0542)
	Average	3.63 (.43)		3.13 (.61)		3.45 (.50)	
	Good	3.76 (.48)		2.97 (.56)		3.52 (.57)	
Housing form	Self-owned house	3.79 (.47)	2.90 (.036)	3.03 (.58)	1.79 (.150)	3.53 (.57)	.55 (.648)
	Off-campus	3.66 (.48)		3.00 (.57)		3.47 (.51)	
	Dormitory	3.61 (.43)		3.97 (.56)		3.46 (.55)	
	Other	3.23 (.46)		3.76 (.20)		3.17 (.14)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	Very unsatisfied <sup>a</sup>	3.34 (.65)	9.29 ( $<.001$ )	3.47 (1.06)	3.35 (.011)	3.51 (.45)	4.10 (.003)
	Unsatisfied <sup>b</sup>	3.50 (.39)		3.29 (.054)		3.35 (.38)	
	Average <sup>c</sup>	3.57 (.44)		3.10 (.55)		3.36 (.47)	
	Satisfied <sup>d</sup>	3.93 (.41)		2.86 (.51)		3.69 (.55)	
	Very satisfied <sup>e</sup>	3.89 (.47)		2.97 (.67)		3.56 (.73)	
Grade Point average *	<3.0 <sup>a</sup>	3.62 (.51)	4.65 (.004)	2.83 (.55)	1.97 (.119)	3.42 (.57)	1.69 (.170)
	3.0-3.5 <sup>b</sup>	3.61 (.45)		3.10 (.54)		3.42 (.53)	
	3.5-4.0 <sup>c</sup>	3.75 (.45)		3.03 (.55)		3.52 (.50)	
	4.0 <sup>d</sup>	3.92 (.42)		3.08 (.64)		3.64 (.60)	
Satisfaction with practice *	Very unsatisfied <sup>a</sup>	3.68 (.72)	8.50 ( $<.001$ )	3.55 (.95)	3.60 (.007)	3.46 (.47)	4.29 (.002)
	Unsatisfied <sup>b</sup>	3.54 (.45)		3.34 (.53)		3.29 (.31)	
	Average <sup>c</sup>	3.49 (.45)		3.13 (.54)		3.31 (.53)	
	Satisfied <sup>d</sup>	3.87 (.41)		2.91 (.58)		3.63 (.53)	
	Very satisfied <sup>e</sup>	3.88 (.42)		2.91 (.48)		3.58 (.62)	
Satisfaction with major *	Very unsatisfied <sup>a</sup>	3.02 (.49)	13.43 ( $<.001$ )	3.68 (.64)	2.71 (.031)	3.17 (.25)	6.03 ( $<.001$ )
	Unsatisfied <sup>b</sup>	3.40 (.45)		3.27 (.63)		3.27 (.34)	
	Average <sup>c</sup>	3.55 (.41)		3.07 (.54)		3.35 (.52)	
	Satisfied <sup>d</sup>	3.82 (.44)		2.99 (.54)		3.55 (.49)	
	Very satisfied <sup>e</sup>	4.07 (.38)		2.84 (.66)		3.84 (.67)	
Peer relationship	Bad	3.04 (.00)	28.04 ( $<.001$ )	3.00 (.00)	.92 (.432)	3.00 (.00)	18.55 ( $<.001$ )
	Average	3.34 (.38)		3.16 (.56)		3.09 (.34)	
	Good	3.66 (.36)		2.98 (.54)		3.45 (.45)	
	Very good	4.03 (.44)		3.02 (.63)		3.90 (.60)	
On-campus substitute practice	Yes	3.72 (.47)	-.30 (.204)	3.02 (.58)	-1.38 (.346)	3.50 (.55)	.76 (.880)
	No	3.76 (.39)		3.21 (.43)		3.37 (.53)	

\* scheffe te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학년( $t=-4.90, p=.013$ ), 나이( $F=5.84, p=.003$ ), 대학 만족도( $F=4.10, p=.003$ ), 실습 만족도( $F=4.29, p=.002$ ), 전공 만족도( $F=6.03, p=.001$ ), 동료관계( $F=18.55,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를 사후 분석한 결과 '21~22세' 집단과 '25세' 집단 보다 '23~24'세 집단이 임상수행능력이 높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인 집단보다 '매우 만족'인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112, p=.110$ ). 자기 주도성과 임상수행능력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r=.588, p<.001$ ) 나타나 자기 주도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3, p=.302$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203)

Variables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r (p)	r (p)	r (p)
Self-directedness	1		
Clinical practice stress	-.112 (.110)	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558 (.000)	.073 (.302)	1

### 3.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자기 주도성, 학년, 나이, 대학 만족도, 전공 만족도, 실습 만족도, 동료관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증한 결과 1.97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 이거나 VIF가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

합하였다. 통계적으로 적합한 최종 회귀 모형은 자기 주도성, 학년, 동료관계가 선택되어 구축되었고 설명력은 38.8%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주도성( $\beta=.49, p<.001$ )이며, 그 다음으로 학년( $\beta=.29, p<.001$ ), 동료 관계( $\beta=.13, p=.013$ ) 순 이었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N=203)

Variables	B	SE	$\beta$	t	p	Tolerance	F
(Constant)	.711	.27		2.63	.009		
Self-directedness	.49	.08	.42	6.05	.000	.636	1.57
Grade	.29	.07	.25	3.91	.000	.760	1.32
Age	-.00	.04	-.01	-1.10	.273	.797	1.25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03	.04	-.05	-.72	.472	.649	1.54
Satisfaction with major	.05	.08	.08	.98	.328	.453	2.20
Satisfaction with practice	-.01	.05	-.01	-.15	.881	.553	1.80
Peer relationship	.132	.05	.18	2.50	.013	.616	1.62

Tolerance= .453~.797 VIF=1.254~2.207  
 Durbin Watson=1.971  
 Adj. R<sup>2</sup>=.388 F=19.30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은 5점 만점에 3.72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 주도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Shin의 연구[14]에서 자기 주도성의 점수가 3학년 3.85점, 4학년 3.81점으로 나온 결과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정도가 중상정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은 향후 자신의 진로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15] 다양한 응급상황과 대처가 필요한 현장에서 스스로 행동하는 자기 주도성이 발휘 되어야 함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파과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02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된 Shin과 Yun[16,17]의 연구에서 3.40점, 3.41점 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본 연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경우 측정 시기가 임상 현장 실습이 대부분 이루어진 후반부에 조사됨으로써 임상실습 지속에 따른 학습과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 된다. 따라서 향후 시점별, 시기별 반복측정을 통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3.50점으로 중상 정도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된 Yu[18]의 3.35점 보다는 높으나,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ang과 Kim[19]의 3.57점 보다는 낮은 결과였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중상 정도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임상 상황과 가장 밀접한 교육 환경과 다양한 임상사례의 적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주도성은 성별, 거주 형태, 대학 만족도, 학교 성적, 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 동료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여학생이, 대학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군이 자기 주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성적은 4.0 이상인 군이,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인 군이 자기 주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6]에서 간호학에 만족하는 경우, 간호직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군이[7] 자기 주도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동료관계가 매우 좋을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팀별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건강 상태, 대학 만족도, 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 상태는 나쁠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6]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대학 생활에 만족할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으며,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 때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던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16,17,20]. 따라서 임상 실습 전 신체적인 건강상태 유지와 체력관리에 힘쓰도록 지도하고, 전공기초부터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그룹에 대한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Shin의 연구에서[16] 학업성적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학년, 연령, 대학 만족도, 실습 만족도, 전공 만족도, 동료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은 3학년보다 4학년이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23]와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23-24세 군이 임상수행능력이 높았고, 대학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높을 때, 임상수행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18,21]에서 전공 만족도와 임상 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Kim 등의[22]연구에서 임상 실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결과들도 있어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동료관계가 매우 좋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18]에서 동료관계가 서로 좋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와 동일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기 주도성은 임상수행능력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Jung의 연구에서[24]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므로 향후 관련성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가 미흡하여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18,23]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 때 임상수행능력이 낮아졌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주도성, 학년, 동료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자기 주도성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연구[24]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주도성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향[5]임을 볼 때 학업이나 임상실습에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 주도성 함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학년이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수행 경험이 늘어나고, 임상수행 기술도 증가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 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현장 실습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3학년 과정에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임상 실습 전 임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료관계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료관계가 임상수행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구는 미흡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선행연구[19,22]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대인관계능력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자와 치료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대상자 및 다양한 부서의 동료들과도 갈등 없는 대인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 기초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며 또래와의 바람직한 동료관계는 향후 의료인의 역할에서도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팀별 동료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팀웍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본 결과, 자기 주도성, 학년, 동료관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학년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임상 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3학년 첫 실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임상에서의 수행항목에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접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동료관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임상 실습에서 요구되는 학습과 함께 팀별, 그룹별, 팀 형성 시 이들의 팀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여, 임상 실습 동안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학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 주도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파악되지 않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 연구를 제안하며, 임상 실습 전에 자기 주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H. R. Yoo, S. M. Chae, J. A. Ahn,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4, No.3, pp.223-231, 2012.  
DOI: <https://doi.org/10.3946/kjme.2012.24.3.223>
- [2] Barrett, C, Myrick, F,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105-108.
- [3] H. M. Son, E. H. Lee, K. S. Cho, "Affecting Factors of New Nurse's Intention to Retention in Hospital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4, NO.3, pp.205-216, 2017.  
DOI: <https://doi.org/10.5953/JMJH.2017.24.3.205>
- [4] Y. M. Shin, M. J. Oh,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ness, College Immersion, and Satisfaction wi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Career Prepar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3, pp.205-216,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3.205>
- [5] E. I. Jeo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ness Scale", *Journal of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 pp.703-730,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703>
- [6] I. Y. Cho,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6, pp.3635-3647, 2014.  
DOI: <http://doi.org/10.5762/KAIS.2014.15.6.3635>
- [7] D. W. Choi, "A Convergence Study on Social Maturity,

-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8, No.10, pp.75-84, 2017.  
DOI: <http://doi.org/10.15207/JKCS.2017.8.10.075>
- [8] S. H. Kim, “Influence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2, pp.163-182, 2017.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7.17.12.163>
- [9] Beck, D. L, Srivastava. R,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 No.3, PP.127-133,1991.
- [10]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1129-1144, 2015.
- [11] S. J.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205-213, 2006.
- [12] O. H. Lee, J. J. Kim, H. K. Hur, K. S. Kim, S. M.Im, “Development of cli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too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Vol.50, NO.13, pp.17-29, 1990.
- [13]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2005.
- [14] J. M. Shin, “The Effects of Proactive Personality on Resilience & Career Resilience of Female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 university, Seoul. Korea, PP.33-34, 2021.
- [15] M. S. Kang, E. R. Bang, “The Influence of Undergraduat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Major Satisfaction up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ability”, *Journal of Korean the Human Development*, Vol.22, NO.4, pp.21-46, 2015.  
DOI: <http://dx.doi.org/10.15284/kjhd.2015.22.4.21>
- [16] M. J. Shin, Y. E. Chun,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19-32, 2018.  
DOI: <http://doi.org/10.15207/JKCS.2018.9.2.019>
- [17] J. H. Yun, S. J. Boo, “Factors Affecting Levels of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5, pp.1199-1214,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5.1199>
- [18]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2, pp.1129-1144, 2015.
- [19] H. S. Kang, Y. Y. Kim, H. S. Lee “Predictiv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389-398,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3.389>
- [20] H. J. Park, N. H. Kim,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24, No.2, pp.21-29, 2020.  
DOI: <https://doi.org/10.38083/JKNS.24.2.202008.021>
- [21] Y. S. Song, J. Y. Le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2, PP.157-166, 2020.  
DOI: <http://doi.org/10.5977/jkasne.2020.26.2.157>
- [22] E. J. Lim, M. H. Lee,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5, pp.179-286, 2019.
- [23] J. Y. Kim, M. K. Kim, J. Y, Cho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 pp.669-678,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669>
- [24] S. Y. Jung, “The Structural Model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5, NO.6, pp.3333-3352, 2013.

## 박 명 남(Myeong Nam Park)

[정회원]



- 2013년 8월 : 경상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여성건강간호, 임상실습

오 은 주(Eun Ju Oh)

[종신회원]



- 2006년 8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교수
- 2020년 9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모유수유, 여성건강증진, 다문화, 간호교육

---

이 해 랑(Hae Rang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4월 ~ 2015년 3월 : 경주서라벌 대학교 간호과 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노인건강간호, 간호교육, 평생교육